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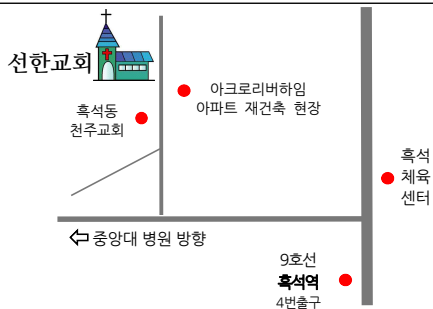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요기도회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조 윤 익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추수 감사주일
축제예배

암송구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찬양팀	
대 표 기 도		조운익 장로	
특	송	유아부	
간	증	전희영 집사	
찬	양	드림성가대	
영	상	감사가 넘쳐나면	
말	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7절)	
헌	금	특송 : 손정환&전희영 집사 헌금위원 : 강병국 심인섭 윤국로	
광	고	인도자	
폐 회 송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사회자 : 권인혁 전도사
말 씬 봉 독		빛나간 삼손의 마음 (사사기 14장) 권인혁 전도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추수감사절 축제예배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절 축제예배로 드립니다.
2. 성경암송대회 오늘 예배 후 성경암송대회 실시
범위 : 2017년 암송구절 뒷면
시험방법 : 전과 동일(시험지 작성 후 제출)
※ 유초등부, 청소년부, 65세이상 별도 시상
3. 성탄절준비위원회모임 오늘 예배 후 성탄절 준비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각 부 회장 및 교육부서 부장은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장소 : 1층 바울회실
4.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및 수능일기도회 일 정 : 11월 23일(목)까지 오전 5시 30분
수험생 : 이우정(이기환,조덕순), 이하나(안기연)
*23일 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수험생을 위한 수능일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진행되며 점심식사 제공합니다.)
5. 부서별 총회 11월 넷째 주(26일)에 부서별 총회가 있습니다.
6. 입당감사예배 12월 10일(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입당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7. 인사/예결산 위원 인사위원 : 조운익, 박희태, 박영근, 편도선, 손영삼, 방성자
예결산 위원 : 한배선, 김대희, 유신웅, 조계승, 이용재, 최영석
8. 사역자동경 11월 20일(월)에서 24일(금)까지 담임목사님 기도원 일정
9. 정오기도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배준비안내및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상도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사사기 12장	사사기 13장	사사기 14장	사사기 15장	사사기 16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가정예배

“고통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찬송 :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통 342장)

본문: 창세기 39장 1~6절

말씀 : 인생을 살다보면 감사한 일,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감당하기 힘든 환난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나와 함께하실까’ 하는 질문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할 것이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안전할 것이며 최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함께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에게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는 어디 계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굳이 겪게 하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원래의 자리에 서게 하실 때 우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을 다 겪고 나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총리대신이 될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면서도 배웠을 것이고,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의 수종을 들면서 정치와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총리가 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고 함께하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다 하나님의 필수적인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이렇게 관여하십니다. 요셉과 같은 과정을 지나게 하심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마음 그릇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의 인격은 기도 몇 번 한다고 성숙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성숙은 사건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가끔은 억울한 일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을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릇을 넓혀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일과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통과하는 중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골2:6-7)

서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론

1. 진정한 감사를 갖는 법

- (1) 감사의 동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6절)
- (2) 감사의 비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믿음에 굳게 서서’(7절)
- (3) 감사의 방법: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7절)

2. 교훈

- (1)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자.
- (2)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자.
- (3)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자.

결론

우리 삶속에 감사가 언제나 넘쳐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예배기도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조윤익 장로	박희태 장로
헌 금 위 원	강병국 심인섭 윤국로	손정환 심인섭 윤국로
안 내	안양셀	상도셀

매일 성경 강독		십볼렛과 씹볼렛, 삶과 죽음		날짜 : 11월 20일	
찬양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찬송가 450장/통일 찬송가 376장)				
통독	사사기 12장				
본문 내용	승전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투에 자기 지파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입다와 그 집안을 위협합니다. 이에 입다는 평소 에브라임과 감정이 있던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을 치게 해 요단 나루턱에서 사만 이천 명을 죽입니다. 입다가 죽은 뒤,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 뒤 사사가 된 스불론 사람 엘론은 별 특징 없이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후에는 부유했던 압돈이 사사가 됩니다.				
생각해보기					
1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 (1) 에브라임 지파사람들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입다의 공을 시기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사건 (2)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를 대적하자 입다는 화가나서 길르앗 사람들을 동원하여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여 42,000명을 죽임 (3) (이전에 사사 기드온의 업적을 중간에서 가로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헛된 자만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도 승리의 열매를 나눌때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이기적이고 야비한 태도로 비방을 서슴지 않음 (4)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욥5:2).				
핵심 단어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 입다와 암몬족 간의 전쟁이 매우 치열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처럼 입다는 여유있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대신 그는 사력을 다해 싸워야만 했다. 따라서 그가 얻은 승리와 영예는 고된 싸움 끝에 얻는 정말로 값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입다는 겸손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이는 손끝하나 움직이지 않고서도 입다의 영광을 시기한 에브라임 지파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왕께 사랑받는 여인의 기쁨”	
찬양과 기도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208장/통 289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프란츠 페르디난트 공은 황태자였던 형이 갑자기 사망하자 그를 대신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로 즉위했습니다. 미혼이던 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녀 조피 호테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유럽 사고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낱 신흥 백작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황제는 그녀가 황태자비라는 직함으로는 공식석상에서 소개될 수 없다는 조건하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출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슬하에 3남매를 두며 10년이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란츠는 자신이 군대의 원수로 승격되자 군대의 원수로서 부대를 사열할 때 아내를 대동하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높여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조피와 함께 사라예보에서 군대를 사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난트 공과 아내 조피는 시내를 이동하는 도중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황태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끌어안은 채 숨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기억하지만, 그 뒤에는 한 여인에 대한 지고 지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페르디난트 공의 사랑은 황제의 권력도, 다른 사람들의 무시도, 죽음의 위협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준 이가 있었나요?		
말씀 나누기	아가 1:1~8		
묵상포인트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오랜 시간 머무는 사람에게서는 그분의 향기가 납니다. 솔라미 여인은 왕과 더욱 친밀하고 싶은 욕망을 입맞춤으로 표현하며,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고 향 기름과도 같다고 표현합니다. 포도주는 잠시 육신의 갈증을 풀어 줄 뿐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의 갈증이 풀어집니다. 향 기름은 그 향으로 많은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 충만한 주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한다면, 결국엔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솔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 대한 자신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 하나요?(2~3절)		
적용하기	아가서를 통해 주님과 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과 나의 친밀함은 어떤지, 또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기억나게 하셔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헛된 용맹 헛된 사랑	날짜 : 11월 24일
찬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56장/통일 찬송가 509장)		
통독	사사기 16장		
본문 내용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에게로 들어가자 가사 사람들이 그를 포위하나 무사히 나옵니다. 삼손은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블레셋 방백들은 각각 돈을 걸고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결을 캐내도록 사주합니다. 세 번에 걸친 거짓말로 삼손은 위기를 벗어납니다. 들릴라의 계속되는 간청으로, 결국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의 규례를 말하고 맙니다. 붙잡혀 온 삼손은 눈을 빼인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마지막 간구를 통해 살아 있는 동안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함께 죽습니다.		
생각해보기			
1	들릴라의 유혹과 삼손의 죽음 (1) 삼손은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었다(기생집 출입, 소렉 여인 들릴라와 교제). (2)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여 그로 하여금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게 하였다. (3) 삼손은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에 못이겨 자신의 힘의 근원을 누설하였고 결국 들릴라의 잔꾀에 의해 머리털이 잘려 버렸다. (4) 하나님께서 그를 떠남으로 힘을 상실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멍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5)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여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하며 축제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고 삼손은 그 곳에 모인 삼천 명의 블레셋인과 함께 장엄한 최후를 맞이했다. (6)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핵심 단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 구약성경에서 이보다 슬픈 장면을 묘사한 구절은 없다. 민 14:40-45에는 이와 유사하게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42절)고 한 장면이 나온다. 아무튼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털을 깎아온 삼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도 더 이상 그에게 머물지 않고 떠나 버렸다. 그러나 그런 사실도 모르고 위기에 처한 삼손은 예전의 힘을 과시해 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무기력해진 자신과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하고 이방 대적들의 능욕거리로 전락한 스스로를 발견하고 절망과 회한 가운데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절망케 만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나실인을 향한 약속		날짜 : 11월 21일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통일 찬송가 205장)			
통독		사사기 13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때 여호와와 사자가 소라 땅에 사는 단 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잉태치 못하던 그녀에게 곧 아들을 낳을 것을 고지하고, 그를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명합니다. 마노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와 사자임을 깨닫지 못한 채, 그를 대접하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자기 이름을 기묘라고 답합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사자는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적을 행하며 자신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 후 삼손이 태어나고,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신에 감동하게 됩니다.			
생각해보기					
1		블레셋의 압제와 삼손의 출생 (1) 입산, 엘론, 압돈 치하에서 25년간 태평한 시대를 보냈던 이스라엘은 다시금 영적으로 해이해짐 (2)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 40년간 블레셋의 압제아래서 신음함 (3) 여호와와 사자가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중 잉태치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잉태 사실과 태어날 자가 나실인이 되어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가 되리라는 사실을 고지함 (4) 마노아는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 (5)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핵심 단어		나실인 - 이에 해당하는 원어 '나지르'는 '바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는 뜻의 동사 '나자르'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거룩하게 구별된자'를 의미한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실인'은 포도 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먹을 수 없으며,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되었다. 이러한 나실인의 규례는 구속사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자신을 드러 헌신, 봉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통일 찬송가 245장)
통독	사사기 14장
본문 내용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 부모와 함께 딘나로 내려가 어린 사자를 만나나 여호와와 신에 감동되어 찢어 죽입니다. 여자를 취하기 위해 다시 딘나로 가서 풍속을 따라 잔치를 배설하고, 동무로 삼은 이들에게 사자의 주검에서 난 꿀에 관한 수수께끼를 내겁니다. 아내의 간청에 못 이긴 삼손이 아내에게 답을 알려 주고, 그 해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내기에 진 삼손은 분노하며 아스글론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옷 삼십 벌을 구해 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아내는 결혼식 동무에게 준 바 되었습니다.
생각해보기	
1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는 삼손 (1)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자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했던 딘나로 내려감 (2) 한 블레셋 처녀를 보고 결혼하려는 삼손의 끈질긴 요구에 그의 부모는 결국 허락함 (3)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호감을 산후 기회를 바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임 (4)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방도를 구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했던 것.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 (5) 삼손의 약점과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시는 놀라운 신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됨
핵심 단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 본질을 통해 볼 때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블레셋과 화친한 것처럼 위장해 그들을 칠 기회를 엿보고자 의도한 것 같다. 이러한 삼손의 의도는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블레셋을 순식간에 진멸시킬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삼손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이는 당신의 뜻을 실행하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블레셋을 격퇴코자 한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이었으나 삼손이 굳이 이방 여인과 불순한 혼인을 하면서까지 그 일을 도모할 필요는 없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이 사용했던 불순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통일 찬송가 433장)
통독	사사기 15장
본문 내용	아내 대신 동생을 취하라는 장인의 제안에 삼손은 블레셋의 곡식단을 다 태워 버립니다. 이에 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은 죽이고, 삼손이 그런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합니다. 숨은 삼손을 유다 사람들이 결박해서 넘겨주나 불탄 삼과 같이 결박이 끊어집니다. 나귀의 새 턱뼈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 일천 명을 죽이고 그곳은 라맛 레히라 이름 붙여집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므로 하나님께서 레히의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솟게 됩니다. 삼손은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고, 이십 년을 사사로 지냅니다.
생각해보기	
1	삼손의 복수 (1)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은 그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장인에게로부터 전해 듣고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화를 달아 모든 곡식밭으로 쫓음으로 모든 곡식 및 감람원을 불살라 버림 (2)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화형에 처하자 격분한 삼손은 나귀 턱뼈로 일천명을 도륙함 (3) 삼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듯이 나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전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자.
핵심 단어	삼손이 심히 목마르므로 - 이로 볼때 삼손이 블레셋 일천 명과 대항하여 싸울 때에 유다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이 싸우는 동안 모두 도망가 버렸음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일천명과 상대하여 싸운 삼손은 이제 지치고 갈증이 나서 기진맥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갈증으로 인하여 죽음 직전에 이른 삼손은,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참 삶을 얻는다는 진리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